

MC 탐방 -

# 모태펀드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한국벤처투자 권성철 대표

모태펀드의 선진화를 선언하며 새롭게 출범한 한국벤처투자가 최근 1차 투자조합 선정을 마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모태펀드로 부상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한국벤처투자를 이끄는 권성철 대표에게서 한국경제의 청사진을 엿본다.

지

난 6월에 출범한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활성화대책’의 핵심 실행모드이기엔 벤처기업인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우선 1조원이나 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의 규모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더불어 펀드의 많은 부분이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투입될 것이라는 소식 때문이다. 한편으로, 펀드를 운용할 선장으로 권성철 대표가 취임했다는 사실이었다. 권대표는 투자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이미 캐피탈업계에서 검증 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 벤처투자의 신기원을 이룰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벤처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벤처업계에 투입된 펀드는 대부분 단기, 직접투자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모태펀드는 장기, 간접투자 방식으로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다. 이는 벤처업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부의 자금지원 방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건전한 투자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에도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 펀드는 8월 12일 1차 투자조합 11곳을 선정하고, 930억을 출자함으로써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상태이다. 따라서 펀드를 최대한 유용하게 운용하기 위한 한국벤처투자의 고심은 이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펀드는 성격상 수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담보해야만 한다. 정부가 출자한 자금인 만큼 어느 한쪽으로는 풀림현상이 일어날 경우 펀드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어느 평가보다 엄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투자계획의 구체성, 현실성을 꼼꼼히 따져 옥석을 가리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힘쓸 생각입니다.” 벤처투자는 증권투자와 달리 공개된 정보가 미흡하다. 따라서 제대로 된 시장분석을 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한번 투자한 펀드는 5~7년은 죽히 물어줘야 하는 만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모태펀드인 만큼 수익성을 생각해야죠. 하지만 펀드를 투입한 데 따른 대가도 있어야 합니다. 자금회수 시 수익성으로 연결돼야 하지요. 즉, 한국벤처투자의 핵심가치는 투자시장의 경쟁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투자회수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모태펀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투자조합을 선정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벤처투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탄탄한 조직을 구축했다. 현재 펀드운용, 리스크관리, 사후관리, 전략기획 등 4개 팀에 펀드전문가 19명이 포진해 있다.

### 세계적인 모태펀드로 자리매김할 터

조직을 운용함에 있어 대표의 역할은 막중하다. 권성철 대표는 가치창출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 한국벤처투자를 이끄는 선봉에 섰다. 그는 이미 한국투자신탁운용, 현대증권, 메릴린치증권회사 등을 거치며 투자 관련 경험을 충분히 섭렵했다. 또한 그는 투자대상이 달라져도 가치창출을 추구하는 소신은 여전하다. 간간한 심사과정을 구축한 것 역시 그의 경영철학에 기인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우수 모태펀드에 견줄 만한 펀드로 만들겠습니다.”

권대표의 경영목표는 이렇듯 명확하다. 규모나 실적 면에서 세계적인 모태펀드를 키워내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벤처투자의 미래상이기도 하다. 한국벤처투자의 세계화, 선진화는 비단 모태펀드 하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모태펀드의 위상이 높아질 경우 한국의 투자문화와 시장여건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바꿀 계획을 밝혔다. 즉, 캐피탈 기능, 투자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 벤처 확인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때에 모태펀드가 탄생한 만큼 벤처기업인은 그 역할에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벤처기업은 한국경제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자연생태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벤처기업이 등장해 줘야 한국경제가 튼튼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태펀드의 종자돈 개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권대표는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도 성장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발적으로 정보격차(information gap)를 해소하여 신뢰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투자자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창출과 동업자 확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기업의 발전에 득이 되는 요인이다.

“기업이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역할은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청됩니다.”

펀드 운영자로서의 기대감이 엿보이는 답변에서 그의 경영철학은 여전히 배어난다. 한국벤처투자는 오는 10월 2차 투자조합 선정해 올해 목표인 1700억원 규모의 자금집행을 완수할 계획이다. 권대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펀드운영의 신기원을 여는 동시에 한국형 벤처캐피탈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는다.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조성될 벤처생태계의 활기찬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희망적이다. 그 역학관계 속에 존재하는 모태펀드의 활약을 기대하며 한국벤처투자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응원한다.